

# 익산, 산단조성 지방채 전액상환 쾌거

### 공영개발사업 지방채 1464억 원 전액상환 당초 상환 계획 7년 앞당겨, 이자 29억 원 절감

익산시는 24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209억 3천만원을 예정보다 7년 앞당겨 전액상환하고 이로 인해 29억원에 달하는 이자부담을 덜게 됐다. 이로써 올해 남아 있던 공영개발사업 지방채 406억 4천만원을 모두 상환해 부채 제로화를 달성했다.

시는 지난 2008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투자의 일환으로 제3·4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수하며 1,46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후 2017년 180억원, 2018년 445억원, 올해 406억4천만원을 상환해 지방채를 모두 갚았다. 이 같은 결과는 전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효

율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절감을 통해 조기상환을 추진한데 따른 것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정부정책의 변화 등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왔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 군산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박람회 개최

### 아동 권리 증진 우수사례 공유, 확산 방안 모색

행복도시 군산시가 아동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과 창의적 놀이를 통해 모범적인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한다. 군산시는 운동목 군산부시장이 24일 경기도 오산시청에서 개최된 제3회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컨퍼런스 및 박람회에서 군산시가 추진 중인 ‘놀이야 교육이다’는 주제로 아동의 놀 권리 확산정책에 대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맘껏 배울 권리·즐길 권리·발달할 권리”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회원인 82개 도시의 시장·군수와 관계 공무원 500여명이 참석해 아동 권리 증진에 대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 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됐다. 운동목 부시장은 사례 발표를 통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아동권리광장 조성, 놀이터 환경진단과 개선, 놀이

활동가 양성 운영은 성인들의 인식 개선, 구도심의 재생,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했다”면서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와 놀이를 통해 행복하고 창조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5월23일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10대 핵심과제 중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과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모범적인 아동친화도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 청년일자리 매칭데이 성료 44개 기업·청년 90여명 참여

군산지역 청년이 매칭데이에서 사회문화서비스 기획 관련 단체 등 44개 기업(단체), 71개의 일자리를 발굴해냈다. 군산시는 23일 군산시 청년들(청년·창업센터)에서 지역의 44개 기업과 청년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매칭데이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과 짧은 인력을 원하는 기업(단체)의 연계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 군산시가 본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모집한 결과,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사회문화서비스 기획 관련 단체 등 44개 기업(단체)에서 71개의 일자리를 이끌어냈다. 이 날 행사에는 90여명의 청년들이 각자 선호하는 기업부스를 방문해 1:1면접을 가졌으며, 그 밖에도 지문적성검사와 퍼스널 컬러진단 체험을 통해 개인에게 어울리는 색깔을 찾는 등 체험부스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매칭데이를 통해 선발된 청년들은 일 경험을 통해 현장 노하우와 직무역량 강화의 기회를 얻게 될 예정이다. 군산시에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인건비의 90%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일자리 창출과(454-438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인구정책 실무부서 현안회의 개최

군산시가 많은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 꿈꿀 수 있는 도시를 만들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군산시는 24일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인구구조 불균형 대비 및 지속적인 군산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맞춤형 통합적인 인구 대책을 세우고자 주요 실무부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인구는 27만8천여 명이었던 지난 2015년 이후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특히,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을 거치면서 군산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인구는 27만까지 붕괴 위험에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현안 회의는 인구정책 실무부서의 담당업무를 보고 있는 계장 26명이 참석해 각 부서별로 인구정책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또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부서 간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인구정책 실무부서 현안회의를 시작으로

인구정책 TF팀을 구성하고, 인구정책과 관련한 공공기관 및 단체를 찾아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출산·양육하기 좋은 가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 협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시책에 맞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구정책 발굴에 대한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 기획예산과에서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함께하는 육아 인식개선을 위한 ‘명랑가족 사진전 및 가족음악회&영재발굴단 노규식 박사 특강’은 10월 10일 오후 7시 군산 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진행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현실성 있는 농업보조금 전환 모색

익산시는 24일 미래농정 자문단 정례회를 개최하고 농업 보조금 정책 방향 전환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정례회는 정명태 명예농업시장주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미복 박사 등이 참여해 익산시 농업 보조

금을 보조금 지원에서 융자 지원으로 타당성 있게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농업 보조금의 융자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 농업의 소득 창출에 대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 융자 지원에

따른 농업분야 투자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어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김완수 미래농업과장은 “신뢰받는 농업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농업회소 및 희망농정위원회 등 농민과 소통·공감하는 농업 보조금 융자 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시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조경연 상임이사,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김병기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혼자 된 남성 노인의 자립 돕는다

### 익산시,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업무협약 체결

익산시에 남성 홀몸 어르신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가 생긴다. 시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조경연 상임이사,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김병기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는 배우자와 사별, 가족 해체 등의 사유로 혼자 된 남성 노인의 자립을 돕는 시설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별관인 부송중동 1단지 주거복지동 신축건물 1층을 생명

숲 100세 힐링센터 설치장소로 제공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전용공간 조성비 1억원과 연간 운영비 5000만원을 지원한다. 힐링센터는 오는 11월부터 저소득 남성 홀몸 어르신을 모집해 요리 교실, 운동교실, 취미활동, 등 아리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송동 지역은 노인, 장애인 등 홀몸가구가 많다”며 “이번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개소는 복지사각지대 있는 어르신들의 삶에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시, 민원공무원 힐링교육 실시

군산시가 적극적인 민원행정 해결을 위해 감정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민원공무원들에게 힐링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본청, 읍면동 민원공무원 33명을 대상으로 '2019년 군산시 민원공무원 힐링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처음 자체적으로 실시한 힐링교육은 시 행정의 최 일선에서 시민을 응대하는 민원공무원의 감정노동 스트레스 관리와 민원담당 직원 상호 호감 업무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보다 더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주요 교육 과정은 △ 스트레스 정

밀진단 및 마음챙김 △ 안티 스트레스 힐링 △ 타로커뮤니케이션 & 캘리그라피 △ 축령산 편백나무 숲 탐방 체험을 진행해 민원업무에 지친 민원담당 직원들의 몸과 마음을 함께 힐링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문용득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힐링교육을 통해 감정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민원공무원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민원공무원 개개인의 자존감 회복이 더 나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탕이 되어 우리시 민원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에 따라 앞으로도 민원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

구독 · 광고문의 288-9700